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9/11 테러 17주년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

“십칠 년 전 거의 삼천 명을 죽음으로 몬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뉴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회복했고 우리의 정상화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의 결과로 힘들었던 첫 며칠을 버티기 위해 이웃들은 서로 도왔으며 함께 치유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나뉘지 않았으며 다른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만약 공격자들이 미국인에게 겸허에 대한 교훈을 주려 한 것이라면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튼튼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개의 신규 고층 건물을 세웠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9/11 추모 박물관(9/11 Memorial and Museum)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에 필적하는 교통의 중심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우리는 코틀랜드 스트리트(Cortlandt Street) 지하철역을 재개방했습니다. 모두 9/11 참사에 굴하지 않고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겠다는 뉴욕의 투지를 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날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타적인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목숨을 살린 용감한 법 집행관들, 소방대원들, 의료 전문가들,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빚졌습니다. 우리는 대응 및 회복에 참여했으며 현재 9/11 관련 질환과 싸우고 있는 분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미국의 자유를 수호했으며 지금도 수호하고 계신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을 비롯한 미국 군대(United States Armed Forces)의 용감한 남녀 병사들을 존경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영웅들의 명맥을 이어나가도록 매진할 것이며 계속해서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